

NEWS LETTER

2022년 02월 10일 Vol. 432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승려대회 의료부스 운영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월 21일 서울 조계사에서 진행된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승려대회에 참여해 의료부스를 운영했다.

이날 승려대회에는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각 지역 사찰에서 5000여명의 스님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에 따라 모든 스님은 경내 입장 전 체온 측정과 안심콜 통화 및 접종 여부를 확인했으며 대회장 좌석도 거리 두기를 적용해 배치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응급 상황에 대비해 구급차를 대기하고 조계사 경내에 의료부스를 설치했으며, 기획처 대외협력홍보팀 김명숙 팀장과 일산병원 간호부 외래간호팀 오미정 팀장이 의료지원을 통해 스님들의 건강을 살폈다.



2021 제17회 QI 경진대회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일산한방병원은 지난 1월 20일 병원 5층 대강당에서 ‘제17회 QI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QI 경진대회는 의료질 향상은 물론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통해 환자 안전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1년간 노력한 활동을 공유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이번 대회에는 QI 활동 27개 주제 중 구연발표 8개, 포스터발표 9개의 주제가 선정됐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원내에 포스터를 전시하고 온라인 투표를 통해 포스터 부문 최우수상을 선정했다. 또한 구연발표 8개 팀은 발표를 통해 수상팀이 선정됐다.

이날 구연발표 대상에 ‘환자경험평가 향상을 위한 긍정적 환자경험 증대 TFT활동’ 주제의 ‘슬기로운 환자경험’ 팀이 선정돼 상장과 상금 80만원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포스터 최우수상에는 ‘직원의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감소 활동’을 발표한 ‘슬기로운 간호사 생활’팀이 수상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권범선 병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QI 활동을 통해 큰 성과를 내줘 감사하다”며“올해 예정인 4주기 의료기관인증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년 설 맞아 전 교직원 대상 격려 선물 전달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설을 맞이해 지난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교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정육 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선물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년 이상 선별진료소 및 발열근무, 감염병전담 병동에서 고생하고 있는 교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권범선 병원장은 “설을 맞이해 교직원 모두가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다”며“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전했다.



2022년 봄을 알리는 시작, ‘입춘대길 건양다경’



입춘은 양력 2월 4일로 24절기 중 첫째 절기인 봄절기로 새해의 봄을 알린다는 뜻을 지닌 날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글귀는 입춘대길건양다경(立春大吉建陽多慶)으로 ‘입춘에는 크게 좋은 일과 경사스러운 일이 많기를 기원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옛날 대궐에서는 입춘이 되면 내전 기둥과 난관에 문신이 지은 시 중 연잎과 연꽃무늬를 그린 종이에다 써서 붙이기도 했으며,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입춘 날에 ‘의춘’ 두자를 써서 문설주에 붙인데서 유래한다고 전해진다.